



제목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Dover Publications
발행일	2011. 11. 2.
저자	Mary G. Houston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08
ISBN 또는 ISSN	978-0486425627

내용 요약

이 책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의 벽화, 부조, 조각에 표현된 복식의 일러스트화를 토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복식 전문가들의 해설을 담고 있다. 각 복식들은 평이한 스타일은 제외하고 스케치하기 전에 당시 복식을 그대로 일러스트로 재현하기 위해 샘플을 실제로 재단하여 드레이핑을 하거나 옷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왕국과 중왕국, 신왕국에 이르는 3000여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의 복식 스타일의 변천, 각 복식에 대한 설명과 디테일과 문양에 대한 의미, 신분별 복식의 유형, 이집트 예술가들에 의해 표현된 다양한 주변 민족들의 복식도 일러스트로 표현하고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복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복식은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원전 3000년경의 양가죽 소재의 스커트, 기원전 2000년경의 커다란 솔 형태,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전 700년경 사이의 솔을 함께 착용하거나 솔을 하지 않은 튜닉스타일은 농경계열에 속하여 유목계열에 페르시아의 복식과 구분하고 있다. 고대 페르시아의 복식은 기원전 6세기 건국부터 4세기에 멸망할 때까지의 아케메네스 왕조,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셀레코우스 왕조와 파르티아 왕조, 기원후 3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사산 왕조로 분류하였다. 복식 스타일은 셀레코우스와 파르티아 왕조가 그리스의 영향을, 사산 왕조는 다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